

美, 한국에 中 견제 역할 요구...외교 '딜레마'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

한·일 관계 개선 압박도 부담

1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라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외교가 큰 틀에서 일단락됐다.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월 예고한 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4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9월)에 이어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한 것이다.

미국이 한해에 동북아 주요 3국인 한·중·일 3국 정상을 위상권에 잇따라 초청한 것은 외교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다.

◇숨은 키워드는 중국=중동에 쏠린 외교·안보·경제자산을 아시아로 다시 가져오는 개념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숨은 키워드는 중국이다. 미국은 표면으로는 중국의 평화로운 굴기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자국 주도의 패권질서에 주도하는 경쟁자이자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외교·안보적 대응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협력의 외연을 점차 넓혀가면서도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패권 확장 기도는 확실히 제어하는 견제와 압박의 공조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재균형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하순 시 주석의 국빈 방미는 협력보다는 대립 쪽으로 가있는 미국의 대중 전략의 결을 선명히 드러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권 등 중국이 불편해하는 이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한·일관계 개선 압박=4월 하순 아



미국 전투기에 오른 아베 **美항모 위 전투기에 오른 日총리 18일 아베 일본 총리(왼쪽에서 둘째)가 전후(戰後)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군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에 올랐다. 그는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함상에 배치된 F-18 전투기 조종석에서 환히 웃고 있다.** /연합뉴스

베 총리와 지난주 박 대통령의 방미는 이 같은 대 중국 견제의 구도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외교 이벤트였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그 핵심은 한·미·일 안보협력 구축에 놓여 있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양대 조약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삼각 협력의 틀로 묶어놓을 경우 중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4월 미국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부장관 주좌로 사상 최초의 한·

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는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 협력 환영=주목할만한 대목은 미국이 단순히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 일본을 향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중 협력관계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중국 의 국제규범과 법 준수를 거론하며 “한국이 목소리를 낼 것(speak out)”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장 외교가에서는 미·중간 갈등이 계속되는 남중국해와 사이버안보 문제를 놓고 한국이 보다 분명하게 미국 편을 들어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 재균형 외교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운 것도 이 같은 압박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진나라 재상 이사

이사(李斯·?~BC 208)는 진시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고 제국의 초석을 닦았다. 초나라 상채(지금의 하남성) 출신으로 한비자와 함께 순자에게 학문을 배웠다.

그는 젊어서 말단 관리를 지냈다. 어느날 관청 변소의 쥐들이 더러운 것을 먹다가 사람이나 개가 가까이 가면 으며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어질거나 못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쥐와 같이 처해 있는 환경에 달렸을 뿐”이라며 탄식했다. 사마천의 ‘이사 열전’에 나오는 일화다.

그는 순자에게 “지금은 제후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는 때여서 유세자들이 정치를 맡고 있습니다. 진왕은 천하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는 지위나 판적이 없는 선비가 능력을 펼칠 때입니다”라며 진나라에서 입신출세



는 단계적 통일론을 제시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초토화 전략과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계책을 병행했다. BC 221년 천하통일이 완성되었다. 그는 통일제국의 기초를 닦는데 올인했다. 황제제 도입, 도량형 통일, 문자 통일 등 거대한 개혁을 밀어붙였다. 황제 독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현제 도입도 그의 구상이었다. 승상 왕관은 왕자들을 지방에 왕으로 봉하는 봉건제를 건의하였다.

그는 전국시대 여러 악의 근원은 왕과 제후의 존재였다고 반박하고 어렵게 평정한 나라에 왕후를 임명하면 전

황제제·군현제 도입 통일제국 초석 닦아

할 뜻을 밝혔다.

재상 여불위는 재능을 알아보고 왕의 시위관으로 삼았는데, 좋은 계책을 계속 내놓자 측근으로 삼았다. 그는 통일을 위해서는 적국에 내부분열을 일으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진왕은 각국의 제후와 결탁하고 군주와 신하 사이를 이간시켰다. 이로써 6국 정벌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는 객경을 임명되었다. 이 작책은 타국 출신자에게 내리는 지위 가운데 재상에 버금가는 자리다. 여불위가 추방된 후에는 사실상 재상 역할을 수행했다.

함양과 하남의 낙수 사이 운하 건설을 둘러싸고 토착세력과 외부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타지방 출신들을 추방하는 축객령(逐客令)이 발표되었다. 그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위기가 있었다. 그는 간객서(諫客書)를 올렸다.

그는 “폐하께서는 지금 백성들을 버림으로써 적국을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반객들을 쫓아버림으로써 제후국들을 강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고 주장하였다. 진왕은 축객령을 폐기했다.

위기를 벗어난 이사는 천하통일의 계책을 건의했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한나라부터 공격해 세력을 넓히

란이 다시 초래될 수 있다며 직접 통치할 것을 역설했다. 전국을 36개 군현으로 나누어 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하는 중앙집권제가 도입되었다.

BC 210년 하북성 사구에서 진시황이 급사했다. 환관 조고는 장남 대신에 차남 호해를 후계자로 세울 것을 6번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는 설득에 굴복해 조서를 바꾸는데 동의했다. 장성 축성을 위해 파견된 장남 부수와 장군 몽염은 그와 불평한 관계였다. 그들은 자살했고 호해가 2세 황제가 되었다.

조고의 처형으로 진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며 폭풍우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는 모반죄에 연루되었고 모진 고문으로 없는 죄를 자백하였다. BC 208년 함양 시장터에서 요참형에 처해졌다.

이사의 처형으로 진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며 폭풍우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는 통일 제국의 초석을 닦은 명 참모이며 경륜있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권력에 집착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 일신을 망가뜨렸다.

사마천은 그가 “군주에게 아첨하고 법령을 얕잡아 하며 형벌을 가혹하게 하였다”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공이나 소공과 어깨를 겨룰만하였다”며 안타까워 했다. <초대대학교 총장>

英, 中 투자 기대 시진핑 극진영접

맨체스터 고속철도 건설 타진...미국 등 동맹국 긴장

영국이 중국의 경제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며 국민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일행을 이례적으로 극진히 영접하자 미국을 비롯한 영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시 주석의 영국 방문을 앞두고 갑작스레 친(親)중국적 태도로 돌변한 영국의 모습에 전통적 동맹국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번 영국 방문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일가와 만찬을 하고 의회에서 연설하며 맨체스터를 찾아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영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기간에 인권

문제 등 중국의 아픈 곳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의 친중국 정책을 이끄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소비자 주도의 경제로 발전하는 중국이 앞으로 영국의 서비스 산업에 주요 시장이 되고, 런던은 중국 금융의 국의 전진기지가 되길 고대하고 있다. 영국은 또 중국이 영국 내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해 투자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은 첫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출 사업으로 영국 남부에 원전 2기 건설에 참여 중이며, 맨체스터의 고속철도 건설도 의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서방국으로는 첫 창립회원국이 됐다. /연합뉴스

메르켈 “터키, 난민 유럽행 막으면 EU가입 도울 것”

정상회담 기자회견서 밝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터키가 유럽 난민 유입을 막는데 적극 나선다면 유럽연합(EU)가입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아흐메트 다부토올루 터키 총리와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터키와 EU는 터키의 EU가입과 유럽으로 여행하는 터키 시민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난민들의 유럽행 관문인 터키는 대신 국경통제를 강화해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유입을 억제하라는 게 EU의 요구다. 터키는 앞서 EU에 시리아 난민을 200만 명 넘게 수용한 터키의 역할 인정과 재정적 지원, 조속한 EU가입을 요구했다.

터키는 근대공화국 창립 100주년인 2023년까지 EU에 가입하는 게 오래된 소망이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터키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를 들어 반대해왔다.

메르켈 총리는 터키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에도 2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돌보는 엄청난 일을 달성한 게 결과적으로 전례 없는 유럽으로의 난민유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EU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강하게 재정적으로 나설 것이며, 독일도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레스토랑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